

완벽주의,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 대 성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의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완벽주의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충북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평가, 그리고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이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 중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불일치 영역 중 우월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불일치 영역 중 우월성, 도덕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일치 영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일치 영역 중 우월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불일치 영역 중 우월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인해 우울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개인이 가치를 두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런 영역에서의 불일치, 즉 불만족을 다룰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평가, 불일치,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번지
Tel : 043-261-2187 / E-mail : mefif@hanmail.net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학업이나 외모, 운동, 경제적 능력 등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치를 얻는 분야에서 완벽해지려하거나 완벽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비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쓰며 실패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과잉일반화를 하며 남보다 우월해야만 한다는 욕구로 인해 쉽게 좌절감을 느끼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Burns, 1980). Obsessive Compulsive Working Group은 완벽주의를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믿는 경향성으로, 무엇인가를 실수나 결점이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지어 작은 실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OCCWG, 1997). 또한 Shafran, Cooper와 Fairburn(2002)은 병리적인 완벽주의를 임상적인 완벽주의(Clinical Perfectionism)라고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적어도 한 가지 특정 영역에서 스스로 요구하는 기준의 달성에 전적으로 몰두함으로써 목표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완벽주의는 연구 초기에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Burns, 1980). 이후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 Hewitt과 Flett(1991a)은 완벽주의 구성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 다차원적인 배열을 수반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보았다. 이 중 Hewitt과 Flett(1991a)은 완벽주의의 기준이

어디에서 유래하고 어떤 영역에 관심을 두는지를 토대로 완벽주의 차원을 구분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의 차원을 행동적 특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누가 완벽하기를 바라는가와 누가 완벽하게 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개발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이하 SOP)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차원은 동기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수행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지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완벽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한다. 그러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불안, 섭식장애(Cooper, Cooper, & Fairburn, 1985), 우울(Hewitt & Dyck, 1986) 등의 다양한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이하 OOP)는 자녀나 친구 같은 중요한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타인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적개심과 불신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외로움, 냉소주의(cynicism), 대인관계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이하 SPP)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하게 하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비현실적이며 통제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실패경험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

Hewitt과 Flett(1991a)가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 개념을 제안한 이후 이들 차원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Blatt, 1995; Hewitt & Dyck, 1986; Hewitt, Flett, & Weber, 1994). 그 중에서 특히 우울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완벽주의,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가 서로 일관되지 않았으며(왕미란, 1995; 한기연, 1993; 홍혜영, 1995;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an, 1991; Hewitt & Flett, 1991a; Hewitt & Flett, 1993; Sturman, Flett, Hewitt, & Rudolph,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서만 우울과 상관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한기연, 1993; Hewitt & Flett, 1991a; 1991b; Sturman et al., 2009).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Alden, Bieling과 Wallace(1994)은 완벽주의 차원들과 우울사이에 중재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근 Sturma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를 자기가치 수반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ll, Hall, 및 Appleton(2011)은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가치 수반성 간에 정적인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이 완벽주의 차원과 관련된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Sturman et al., 2009).

자기가치 수반성은 개인마다 자신의 가치를 얻는 영역과 그 중요성이 다를 수 있고 가치를 얻는 영역에서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개념이다(Crocker & Wolfe, 2001). 또한 자기가치 수반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Leary, Tambor, Tedral, & Down, 1995) 이를 위해 성취경험에 필요한 영역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다(Crocker & Knight, 2005).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자기 평가는 자신에게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평가라는 James(1980)의 '중요성 가설'을 정교화한 것이다. Sturman 등(2009)은 완벽주의가 조건부 자기가치와 강하게 연관되며, 완벽주의자를 이해하는데 있어 조건부 자기가치를 핵심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Hill 등(2011)은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자기가치와 성취에서 다른 신념이 수반된다고 제안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과도하게 높은 개인적 기준의 달성여부에 따라 자기수용이 수반된다는 신념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부과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의 수용이 수반된다는 신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치의 수반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밝혔는데,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개인 간 경쟁에서 우수한 수행을 통해 자기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기 쉽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Flett과 Hewitt(2002)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조건부 자기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가치가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 수반된다고 설

명하였다.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단지 부모나 동료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짐으로써 수반성과 연관됨을 설명하였다. Crocker와 Park(2004)는 개인이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완벽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공하기 위해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자기가치는 완벽주의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Anna, Stacy, 및 Rachel(2016)은 높은 기준을 갖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가치가 수반된 영역에서 성공을 위해 그들 스스로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수란과 이동귀(2007)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영역에서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상적으로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 모습과의 불일치로 인해 부적응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개인들이 가치를 수반한 영역에서 실제 경험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전 Higgins, Bond, Klein과 Strauman(1986)은 완벽주의자들이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 간에 불일치(discrepancy)를 경험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의 경우,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실제 자기(actual self)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이는 우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시 의무적 자기(ought self)와 현실 자기(real self)간에 불일치를 경험하며 이는 불안, 우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Higgins et al, 1986).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

한 이상적인 자기상(self-image)과 개인이 지각하는 실제 자기상 사이의 불일치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Roger, 1961; Schafer, 1967). Hewitt과 Flett(1991a)은 완벽주의의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우울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Hewitt과 Dyck(1986)은 엄격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과 불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거나 높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경향에서 불일치를 찾아볼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이와 관련하여 이전 조건부 자기가치가 우울에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Burwell & Shirk, 2006; Crocker & Luhtanen, 2006).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건부 자기가치를 갖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자존감의 수준과 함께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일수록 이러한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argent, Crocker, & Luhtanen, 2006; Schöne, Tandler, & Stiensmeier-Pelster, 2015; Sowislo & Meier, 2014; Wouter et al., 2013).

최근 Schöne 등(2015) 연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적인 유능감에 그들의 자존감이 크게 수반된 경우 학업적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Sargent 등(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나 학업,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영역에 높은 수준의 조건부 자기가치를 둔 대학생에서 우울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이수란과 이동귀(2007)

은 자기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수반성 영역에서의 점수와 실제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 사이의 불일치가 부정적인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자기가치 수반성을 갖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영역과 개인의 실제 경험을 고려한 자기평가 간에 불일치가 클수록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반성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불만족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이동귀, 2011), 이러한 결과들을 자기가치를 수반하는 영역과 개인의 실제 경험을 고려한 자기평가 간에 불일치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자가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적응적이지 못한 높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자기와의 불일치, 즉 불만족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완벽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이 학업적 성취에 대한 수반성이 동일하게 높더라도 실제로 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보다 많은 부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반대로 동일한 성적을 받을 경우 학업적 성취에 대한 수반성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성적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이수란, 이동귀, 2008).

이제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서만 우울과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었으며 자가지향 완벽주의에서는 우울과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우울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의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완벽주의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과 타인의 승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남·충북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42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남자는 198명(46.3%), 여자는 230명(53.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69세($SD = 2.49$)였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클립파일 등 소액의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Flett (1991a)이 완벽주의 방향이 향하는 것에 따른 완벽주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PS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결점 없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주의의 초점을 타인의 수행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맞추게 된다. 따라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경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수행에 따른 신념을 수반하므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최저 45점에서 최고 315점까지의 총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MPS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SOP)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SP)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78과 .72로 나타났다.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cker, Luhtanen, Cooper, 및 Bouvrette(2003)이 제작한 척도(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이수란(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K-CSWS는 우월성, 신의 사랑, 도덕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의 5개 영역,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7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는 그 영역에서 자기가치를 높이 수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K-CSWS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가지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K-CSWS의 5개 하위영역에 대해서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를 사용하였다. 평가지는 Vignoles, Regalia, Golledge 및 Scabini(2007)의 연구와 안신희, 박미영(2005)의 연구, 이수란,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것으로, 자신감, 긍정적 감정 경험, 효능감, 만족도 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이 영역(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 영역(우월성)에 대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 되어있다. 참가자들은 5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간단히 기술된 문장을 읽은 후, 각 영역과 관련된 현재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게 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의 실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II)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ck, Steer, Brown(1996)이 제작한 Beck 우울 척도(BDI-II)가 국내에서 유효화되기 전,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0

점에서 3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의 총 점수를 가지며, 높은 점수는 높은 우울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자료를 SPSS 18.0을 이용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점수는 자기가치 수반성 척도와 자기평가 척도의 점수 범위가 7점과 5점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점수를 표준점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표준점수화 한 자기가치 수반성 영역별 점수에서 표준점수화 한 자기평가 영역별 평가 점수를 빼줌으로써 불일치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우월성, 타인의 승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완벽주의,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평가, 불일치 및 우울의 상관관계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평가, 불일치가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 중 자기 지향 완벽주의(SOP)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PP)는 우울($r = .19, p < .01; r = .34,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 중 자기지향 완벽주의(SOP)는 수반성 영역 중 우월성($r = .48, p < .01$), 타인의 승인($r = .21, p < .01$), 도덕성($r = .28, p < .01$), 가족의 지지($r = .14,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불일치 영역에서는 우월성($r = .18, p < .01$)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PP)는 수반성 영역 중 우월성($r = .29, p < .01$), 타인의 승인($r = .18, p < .01$), 도덕성($r = .1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불일치 영역에서는 우월성($r = .20, p < .01$), 타인의 승인($r = .18, p < .01$), 도덕성($r = .12, p < .05$), 가족의 지지($r = .13,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가치 수반성 영역 중 우월성, 타인의 승인이 우울($r = .14, p < .01; r = .27,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 중에서는 우월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가 우울($r = .23, p < .01; r = .33, p < .01; r = .12,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r = .34,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의 승인 불일치가 우울($r = .33,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SOP	-																	
2. SPP	.47**	-																
3. 우울성	.48**	.29**	-															
4. 신의 사랑	-.03	.06	-.05	-														
5. 타인의 승인	.21**	.18**	.39**	-.04	-													
6. 도덕성	.28**	.14**	.38**	-.06	.15**	-												
7. 가족의 지지	.14**	-.02	.42**	-.05	.14**	.35**	-											
8. 우울성 평가	.24**	.03	.21**	-.04	-.09	.17**	.23**	-										
9. 신의사랑 평가	-.02	.01	.01	.68**	-.03	.02	-.01	.12*	-									
10. 타인의승인 평가	.13**	-.08	.16**	-.07	-.02	.09	.25**	.55**	.05	-								
11. 도덕성 평가	.20**	.01	.24**	-.09	.06	.43**	.24**	.40**	.08	.51**	-							
12. 가족의지지 평가	.06**	-.16**	.12*	-.03	.00	.14**	.44**	.33**	.07	.44**	.32**	-						
13. 우울성 불일치	.18**	.20**	.62**	-.01	.38**	.16**	.14**	-.64**	-.08	-.32**	-.13**	-.18**	-					
14. 신의사랑 불일치	-.02	.07	-.08	.45**	-.02	-.09	-.06	-.19**	-.35**	-.17**	-.22**	-.12*	.09	-				
15. 타인의승인불일치	.05	.18**	.16**	.23	.72**	.04	-.07	-.45**	-.06	-.71**	-.31**	-.30**	.49**	.11	-			
16. 도덕성 불일치	.05	.12*	.10*	.04	.08	.47**	.07	-.23**	-.06	-.42**	-.60**	-.20**	.26**	.13**	.34**	-		
17. 가족의지지불일치	.07	.13**	.26**	-.02	.12*	.18**	.47**	-.12*	-.07	-.21**	-.10*	-.59**	.30**	.07	.26**	.23**	-	
18. BDI-II	.19**	.34**	.14**	-.01	.27**	.05	-.07	-.15**	-.01	-.20**	-.03	-.24**	.23**	-.01	.08	.33**	.12**	-

주. SOP = 자기지향 완벽주의; SPP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 $p < .05$. ** $p < .01$.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일치의 매개효과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 3, 4, 5에 제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 3, 4, 5에 제시하였다.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 = .21, p < .001$),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성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3, p < .001$).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성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성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B = 1.27, p < .001$), 우울성 불일치를 통제된 후에도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7, p < .01$).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결과, 자가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21에서 .17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울성 불일치가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한 절차를 통해 검증한 매개효과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모형은 Z값이 3.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성 불일치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일치의 매개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 = .43,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성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4,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성 불일치가 우울에

표 2.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B	β	R^2	F	Sobel's Test
BDI-II	SOP	.21***	.19	.03	14.91***	3.06**
우울성 불일치	SOP	.03***	.18	.03	14.79***	
BDI-II	우울성 불일치	1.27***	.20	.07	16.61***	

주. SOP = 자가지향 완벽주의;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 $p < .01$. *** $p < .001$.

표 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B	β	R^2	F	Sobel's Test
BDI-II	SPP	.43***	.34	.12	54.68***	3.30**
우울성 불일치	SPP	.04***	.20	.04	18.53***	
	SPP	.39***	.31	.14	34.55***	
BDI-II	우울성 불일치	1.05***	.17			

주. SPP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 $p < .01$. *** $p < .001$.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성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B = 1.05, p < .001$), 우울성 불일치를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9,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성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43에서 .39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울성 불일치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타인의 승인 불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 = .43,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타인의 승인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4,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의 승인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타인의 승인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B = 1.48, p < .01$), 타인의 승인 불일치를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6,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승인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

표 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타인의 승인 불일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B	β	R^2	F	Sobel's Test
BDI-II	SPP	.43***	.34	.12	54.68***	3.42**
타인의 승인 불일치	SPP	.04***	.18	.03	14.68***	
	SPP	.36***	.29	.19	48.17***	
BDI-II	타인의 승인 불일치	1.48**	.27			

주. SPP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BDI-II = Beck Depression Inventory-II

** $p < .01$. *** $p < .001$.

표 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의 지지 불일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B	β	R^2	F	Sobel's Test
BDI- II	SPP	.43***	.34	.12	54.68***	
가족의지지 불일치	SPP	.02**	.13	.02	7.61***	2.20*
BDI- II	SPP	.41***	.32	.13	31.98***	
	가족의지지 불일치	1.00**	.13			

주. SPP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BDI- II = Beck Depression Inventory- II

* $p < .05$. ** $p < .01$. *** $p < .001$.

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49에서 .3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승인 불일치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 = .43,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가족의 지지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2, p < .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가족의 지지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의 지지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B = 1.00, p < .01$), 가족의 지지 불일치를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1,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43에서 .4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울성 불일치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aron과 Kenny가 제시한 절차를 통해 검증한 매개효과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성 불일치의 매개모형은 Z값은 3.30, 타인의 승인 불일치의 매개모형의 Z값은 3.42, 가족의 지지 불일치의 매개모형 Z값은 2.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성 불일치, 타인의 승인 불일치, 가족의 지지 불일치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완벽주의(perfectionism)는 높은 기준을 세움으로써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정신병리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우울과 관련해서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서만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완벽주의 특성

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성,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이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 하위차원인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람들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완벽을 요구받게 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Flett et al., 1991; Frost, Heimberg, Holt, & Mattia, 1993; Hewitt & Flett, 1991a, 1991b; Hewitt & Flett, 199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완벽주의 특성이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과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불일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경우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우울성을 비롯해 타인의 승인, 도덕성, 가족의 지지와도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불일치 영역 중 도덕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도 즉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 양심에 있어서 높은 기준을 부여받으며 여기에서 불일치, 즉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 특성차원에 따라 가치 및 성취에서 다른 신념을 수반하며, 가치를 얻는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한 Hill 등(201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완벽주의 특성 하위차원과 다섯 가지 불일치 영역의 관계를 살펴보고 완벽주의 하위차원에 따라서 불일치 영역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자기가치와 성취에서 다른 신념이 수반된다고 제안하였다. Hill 등(2011)은 완벽주의 차원이 자기가치와 성취에서 다른 신념을 수반함을 설명하면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과도하게 높은 개인적 기준의 달성여부에 따라 자기수용이 수반된다는 신념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부과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의 수용이 수반된다는 신념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Hewitt과 Flett(1991a)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다고 설명한 바 있고 타인의 수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반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불일치 영역 중 도덕성과 가족의 지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불일치, 즉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완벽주의가 도덕과 가족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고 본 몇몇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임진현, 전미란, 최승언, 2012;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본 연구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이 우울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가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하거나 경쟁에서 잘하는 것으로서 학업에서 잘하는 것,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승인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타인이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의 지지는 나를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영역들에서의 불일치, 즉 불만족이 커질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과 타인의 승인이 우울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이수란,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에서는 이상적인 자기 또는 의무적인 자기와 실제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 사이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우울, 불만족,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Crocker와 Wolfe(2001)가 설명한 자기가치 수반성 이론에서는 가치를 얻는 영역에서 수반성이 클수록 자존감의 변동이 심하며 따라서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불일치 영역 중 가족의 지지는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할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배경화, 2010; 이윤희,

2003). 이와 반대로 이수란(2007)의 연구에서는 불일치 영역 중 가족의 지지가 우울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로 현재는 분명하지 않으나 표집의 차이 또는 집단 크기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완벽주의 특성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치를 두게 되는 영역에서의 불일치, 즉 불만족을 통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Crocker와 Wolfe(2001)는 자기가치 수반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가치를 두는 영역에서의 성취여부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달라질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iggins(1987)는 완벽주의 특성이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에서 불일치를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자가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성 불일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성 불일치가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 타인의 승인, 도덕성, 가족의 지지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불일치 영역 중 우울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가 사회

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완벽주의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불일치 즉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더욱 부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1995)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자기가치 수반성이 완벽주의와 우울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완벽주의 특성이 불일치 영역과 상관이 있고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가치를 얻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겠다. 그리고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임상·상담 장면에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인해 우울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개인이 가치를 두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런 영역에서의 불일치, 즉 불만족을 다룰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비 임상적인 충남·충북 대학생 집단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반집단과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이나 실험과제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주

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인 관계적 특성 측면을 살펴보는 Hewitt과 Flett(1991a)이 제작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MPS)를 사용하였다. 완벽주의는 대인관계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 측면(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et al., 1990)과 인지적인 측면(Perfectionism Cognition Inventory: PCI; Flett, Hewitt, Blankstein, & Gray, 1998)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대인 관계적 특성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과 인지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기가치 수반성이 정확히 이상적 자기나 의무적 자기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따라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불일치가 본 연구에서는 정확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한계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불일치라는 개념은 조건부 자기가치와 현재 자신의 만족도 사이의 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완벽주의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 (2007). 한국판 BDI-II의 타당화 연구 I: 여대생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997-1014.
- 김혜영 (2011). 고등학생의 자존감 영역별 수반성과 영역별 자기평가 간의 불일치에 따른 하위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경화 (2010). 노인의 건강지각과 가족지지 및 우울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유미숙, 하은혜, 김혜진 (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425-444.
- 이수란 (2007). 한국 대학생의 자존감의 수반성: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사의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이윤희 (2003). 산재환자의 가족지지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현, 전미란, 최승언 (2012). 과학영재의 성취동기와 자기개념, 완벽주의,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2(4), 985-1007.
- 왕미란 (1996). 완벽주의, 자의식 및 우울성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na, M. B-C., Syacy, L. L., & Rachel, M. B. (2016). Perfectionism and Contingent Self-Worth in Relation to Disordered Eating and Anxiety. *Behavior Therapy, In Press, Corrected Proof*.
- Alden, L. E., Bieling, P. J.,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297-31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Manual for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1, 82.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ic'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1.
- Burwell, R. A., & Shirk, S. R. (2009). Contingent self-worth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A commentary. *Sex Roles*, 61(11), 769-777.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0-203.
- Crocker, J., & Luhtanen, R. K. (2003). Level of self-esteem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Unique effects on academic, social, and financi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6), 701-712.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ooper, Z., Cooper, P. J., Fairburn, C. G. (1985). The specificity of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129-130.
- Crocker, J., Luhtanen, R., Cooper, M. L., & Bouvrette, S.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 Measurement and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Flett, G. L.,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ternational Difference*, 12(1), 61-68.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Gray, L. (1998).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frequency of perfectionis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63-1381.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M.,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4(5), 449-468.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1),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of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y. *Journal Personality and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

-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Flett, G. L., & Weber, C. (1994).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5), 439-46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ll, A. P., Hall, H. K., & Appleton, P. R.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38-242.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5*(7), 667-681.
- Rogers, C. R. (1961). *Client-centered therapy*. Bury St. Edmunds: St. Edmunds-bury Press.
- Sargent, J. T., Crocker, J., & Luhtanen, R. K. (2006).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28-646.
- Schafer, R. (1967). Ideals, the ego ideal, and the ideal self. In R. R. Holt (Ed). *Motives and thought: Psychoanalytic essays in honor of David Rapaport* [Special issue]. *Psychological Issues, 5*(2-3), 129-174.
- Schöne, C., Tandler, S. S., & Stiensmeier-Pelster, J. (2015). Contingent self-esteem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cademic contingent self-esteem predicts depressive symptoms in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6*, 1-13.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nsulting and Development, 3*(3), 130-145.
- Sowislo, J. F., Orth, U., & Meier, L. L. (2014). What constitutes vulnerable self-esteem? Comparing the prospective effects of low, unstable, and contingent self-esteem o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3*(4), 737.
- Sturman, E. D., Flett, G. L., Hewitt, P. L., & Rudolph, S. G. (2009).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self-worth contingencies in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7*(4), 213-231.
-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idge, J., & Scabini, E. (2007).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 on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08-333.
Wouters, S., Duriez, B., Luyckx, K., Klimstra, T.,
Colpin, H., Soenens, B., & Verschuere, K.
(2013). Depressive symptoms in university
freshmen: Longitudinal relations with
contingent self-esteem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4),
356-363.

원고접수일 : 2016. 06.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05.
게재결정일 : 2016. 10. 26.

Perfectionism and Self-Discrepancy between a Given Domain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its Self-Evaluation in Depression

Dae-Sung Choi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discrepancy between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evalua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total of 428 undergraduate students in Chungnam and Chungbuk areas participated, and completed the self-report measures of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 the Self-Evaluation in domain-contingencies,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bel test for this data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e self-oriented perfectionis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uperiority discrepancy only. Moreover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uperiority discrepancy, virtue discrepancy, others' approval discrepancy, and family support discrepanc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 superiority discrepancy. Additionally, superiority discrepancy, others' approval discrepancy, and family support discrepa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Key words : perfectionism,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evaluation, discrepancy, depression